

### Ⅲ. 總 評

전술한 바와 같이 본 건은 독일 뮌스터대학 사회학 교수이자 철학자인 송두율이 국내 잡지 등에 기고한 글들과 그가 최근에 집필한 글들을 엮어 한겨레신문사에서 단행본 「경계인의 사색」이란 제명의 책자로 발행한 것으로써, 분석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른바 '국가보안법', '준법서약서'를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으로 조명하면서, 철폐투쟁의 당위성을 선전하고 있다.

둘째, 이른바 주한미군철수투쟁의 당위성을 선전하면서, 반미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셋째, 제3부 "또다시 '내재적'으로 본 북한"에서는 '내재적' 연구방법에 의하여 김정일의 통일관, '고난의 행군', 북한의 현실과 이상, 최근의 경제개혁 조치 등에 대한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을 새로 시작해야 할 것을 언급하고 있으나, '북한 바로 알기 운동'에 대하여 북한을 신비화하거나 덮어놓고 미화만 해서도 안되고, 북한을 악마의 화신으로 보고 철저히 파괴할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될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등 북한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비호 찬양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는 추상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본 건은 국가보안법 및 준법서약서 철폐, 주한미군철수 등의 당위성을 선전 선동하면서, 반미, 반정부 투쟁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은 반미, 반정부적 표현으로 평가된다.<끝>

2002 年 10 月 24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김 윤 영 印

## 鑑 定 書

## 1. 對 象

가. 文 件 名 :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 作 成 者 : 송두울

다. 發 行 處(日) : 불명( 불명 )

## 2. 分 析

## 가. 概 要

본 문건은 베를린자유대학 강사인 송두울이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작성하여 학술지에 게재한 글로서, 그 주요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한국전쟁 이후 내걸었던 ‘주체적 발전전략’은 중소분쟁 속의 중소등거리 외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농업경제 분야의 성과’를 선전하고, 사회주의 국가 대부분이 처하고 있는 농업위기와 관련하여 ‘북한 농업의 생산과 분배의 조직문제’는 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도 최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농업 발전전략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 ‘농촌과 도시간의 격차 극복’이라는 북한의 발전 전략을 찬양하고 있다.

넷째, 사회주의적 자립경제 건설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자급자족적 경제운용은 분명히 특징적 발전유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선전하고, 특히 후진국 사회학자인 쟁하스의 지적을 인용하면서, 무역의존도면에서 북한은 철저한 자급자족 지향적인데 비해, 남한경제는 실질경제능력보다 과도한 대외무역의존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問題內容 分析

1) 북한이 한국전쟁 이후 내걸었던 '주체적 발전전략'은 중소분쟁 속의 중소등거리 외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을 선전 및 찬양하고 있다.

"사회주의 물질 토대를 구축하는 문제에 있어서 자급자족의 원칙은 서방 제국주의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업화를 즉각적으로 단행해야 한다는 소련공산당 14차 당대회 결정에서도, ... 모택동 지도하의 중국에서도 우리는 주체적 발전전략의 내재적 요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된 사회주의' 소련 중심의 수직적 국제분업의 압력과 전통적으로 중화사상에 시달렸던 북한이 한국전쟁 이후 내걸었던 주체적 발전전략은 중소분쟁 속에서 가능한 북한의 중소등거리외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111쪽 26행 - 112쪽 8행)

2)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농업경제 분야의 성과'를 선전하고, 사회주의 국가 대부분이 처하고 있는 농업위기와 관련하여 '북한 농업의 생산과 분배의 조직문제'는 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도 최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찬양하고 있다.

"특히 후진국 사회학자나 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적하고 있는 문제는 북한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농업경제 분야에서의 성과이다. 사회주의국가 대부분이 처하고 있는 농업위기와 관련하여 북한 농업의 생산과 분배의 조직문제는 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도 최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 북한은 여전히 집단적인 생산·분배단위를 유지하면서도 상당한 수준의 농업생산을 유지하고 있어 후진국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협동화 전략과 관련 속에서 흥미있게 연구되고 있다. 즉 농업생산의 사회화 내지 집단화가 반드시 농민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리고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증으로서 북한농업경제의 '성과'는 제시되고 있다."(112쪽 16행 - 113쪽 4행)

3) 농업 발전전략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 '농촌과 도시간의 격차 극복'이라는 북한의 발전 전략을 선전 및 찬양하고 있다.

“농업발전 전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농촌과 도시간의 격차 극복이라는 전략에 있어서도 북한은 특징적 발전전략을 지니고 있다. 소련에서 ... 실패한 집단농장의 대형화를 통한 농촌의 도시화 전략이나, ... 루마니아의 '농공단지' 조성 계획, 또 이와는 정반대의 중국의 경험 ... 과는 달리 북한은 도시와 농촌의 중간고리인 전통적 행정단위인 군을 강화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고수, 오늘 '과도도시화'의 문제에 고민하는 제3세계 국가의 지역발전계획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113쪽 5-13행)

4) 사회주의적 자립경제 건설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자급자족적 경제운동은 분명히 특징적 발전유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선전하고, 특히 후진국 사회학자인 쟁하스의 지적을 인용하면서, 무역의존도면에서 북한은 철저한 자급자족 지향적인데 비해, 남한경제는 실질경제능력보다 과도한 대외무역의존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자립경제 건설 문제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원칙, 즉 국토가 크고 인구나 자원 등이 풍부한 나라에서만 자급자족적 경제운동이 가능하다는 원칙이 북한과 같은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도 가능하다는 사실은 일찍이 ... 최근 후진국 사회학자인 쟁하스(D. Senghaas)나 ... 등에 의해서도 연구되고 있다. ... 중국경제와 비교할 때 조그마한 북한의 자급자족적 경제운동은 비록 풍부한 북한의 지하자원을 고려하더라도 분명히 특징적 발전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쟁하스는 ... 북한경제가 ... 무역의존도는 ... 철저한 자급자족 지향적 경제인 데 비하여, 남한경제의 그것은 ... 실질경제능력보다 과도한 대외무역의존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113쪽 14-29행)

### 3. 總 評

본 문건의 문제내용을 분석·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북한이 내걸었던 '주체적 발전전략'은 중소분쟁 속의 중소등거리 외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을 선전 및 찬양하고 있다.
- 2)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농업경제 분야의 성과'를 선전하고, 사회주의 국가 대부분이 처하고 있는 농업위기와 관련하여 '북한 농업의 생산과 분배의 조직문제'는 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도 최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찬양하고 있다.
- 3) 농업 발전전략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 '농촌과 도시간의 격차 극복'이라는 북한의 발전 전략을 선전 및 찬양하고 있다.
- 4) 사회주의적 자립경제 건설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자급자족적 경제운동은 분명히 특징적 발전유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선전하고, 특히 후진국 사회학자인 쟁하스의 지적을 거론하면서, 무역의존도면에서 북한은 철저한 자급자족 지향적인데 비해, 남한경제는 실질경제능력보다 과도한 대외무역의존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컨대 본 문건에서는 북한의 '주체적 발전전략'이라는 경제발전전략의 우월성을 선전 및 찬양하고 있고,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농업경제 분야의 성과'를 선전하고 있으며, '농촌과 도시간의 격차 극복'이라는 북한의 농업발전전략을 거듭 선전 및 찬양하고 있고, 북한의 자급자족적 경제운동을 찬양하면서 특히 무역의존도면에서 북한에 비해 남한경제는 과도한 대외무역의존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문건은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우월성을 선전 및 찬양하고 있으므로, '容共' 성향의 문건으로 평가된다.

2002 年 1 月 29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정 원 영 印

## 鑑 定 書

## 1. 對 象

가. 文件名 : 「분단시대를 넘어서기 위한 남북사회의 과제」

나. 作成者 : 송두율

다. 發行處(日) : 불 명

## 2. 分 析

## 가. 문건의 개요

본 문건은 在獨 학자인 상기 작성자가 특별강의 형식으로 제출한 발제문 임. 전반적인 내용은 분단구조를 넘어 통일하기 위한 과제를 나뉠대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자기안의 타자로서 바라보는 훈련을 쌓을 것”을 강조하는 수준임.

## 나. 문건의 내용과 문제부분 검토

(1) 우선 본 문건에서는 분단체제의 속성을 지적하면서, 남북현실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철학적 사회학적 접근논리에 치중해 있어 이러한 주장에서 구체적인 이적성을 지적키는 어려움.

(2) 또한 민족통일을 위한 가장 중요한 대안으로 “남과 북이 서로를 자기안의 타자로서 바라보는 훈련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4면). 이러한 주장 역시 구체적인 이적성을 지적키는 어려운 수준의 내용임.

### 3. 總 評

앞의 분석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 문건은 在 獨逸 학자인 상기 작성자가 특별 강의 형식으로 제출한 발제문 임. 전반적인 내용은 남북한이 분단구조를 넘어 통일하기 위한 과제를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우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자기안의 타자로서 바라보는 훈련을 쌓을 것”을 강조하는 수준임.

이러한 주장과 함께 우리는 남이나 북이나의 선택이 아니라 남과 북을 이루는 전체와 남과 북은 서로의 관점을 바꿔볼 수 있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에서 본 문건만의 내용으로 이념적 맥락에서 문제삼기는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 됨.

#### 分 析

(이하 여백)

#### 가. 문건의 개요

본 문건은 在獨 학자인 상기 작성자가 특별강의 형식으로 제출한 발제문 임. 전반적인 내용은 분단구조를 넘어 통일하기 위한 과제를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자기안의 타자로서 바라보는 훈련을 쌓을 것”을 강조하는 수준임.

#### 나. 문건의 내용과 문제부분 검토

(1) 우선 본 문건에서는 분단체제의 속성을 지적하면서, 남북선실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철학적·사회학적 접근보다는 경험적·실용적이며 이러한 주장에서 구체적인 이력성을 지적하는 어려움

2001 年 7 月 12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이

조

원

印

# 鑑 定 書

## 1. 對 象

- 가. 文 件 名 : "왜 노동자계급인가?"
- 나. 作 成 者 : 민주노동당
- 다. 發 行 處(日) : 민주노동당(불명)

## 2. 分 析

### 가. 성격

이 문건은 지배계급(=착취계급=자본가)과 노동계급(=피착취계급=피지배계급=노동자)의 계급론적 시각에서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투쟁, 혁명을 통한 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 장악을 주장하고 있는 총 3쪽의 유인물임.

### 나. 내용 분석

● 이 문건은 자본주의 지배계급으로부터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자계급의 투쟁과 혁명을 정당화, 합리화시키고 있는 논리를 담고 있음.

0. "... 사회의 극소수를 이루는 지배계급은 공장, 기계설비, 원자재 등을 소유·통제하고 있다... 주들은 이윤을 늘리기 위해 자신들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착취한다. 노동자들은 임금수준을 낮추고 판매되는 상품들을 직접 생산하는 판매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상품들의 사회적 위치 덕분에 그들은 자본주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다른 노동자들과 서로 협동하게 만들고 이 결과 이들이 노임청난 상품도 하등한 상품도 만들어 내는 힘을 갖도록 한다... 노동자들은 이들을 집단적으로 조직되게 만들고 이 결과 이들이 노임청난 상품도 하등한 상품도 만들어 내는 힘을 갖도록 한다... 노동자들은 적절히 투쟁을 위해 동맹을 맺는다... 투쟁이 투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노동조합을 만들고 이 조합을 주도하는 자는 모든 부류의 노동자들이 협동하고 함께 노동을 자행한다... 장악함으로써 지배계급의 힘을 빼앗을 수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자본가와 투쟁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위한 투쟁하는 힘을 가질 수 있다. 노동자계급은 사회의 불평등에 대항하는 세력에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이 투쟁하는 힘을 통해 노동자계급은 공장별 수업을 이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 장악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다수의 지배를 뜻한다..." <pp.1-3.>

## 3. 總 評

결론적으로 이 문건은 마르크스주의(Marxism)적 노동계급에 의한 투쟁과 혁명을 통해 자본가계급과 자본주의체제의 타파를 선전선동하고 있는 것인 바, 용공성의 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됨. <끝>

2001 年 07月 30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印



# 鑑 定 書

## 1. 對 象

가. 文 件 名 : 2002년 민주노동당 2차 서울대 학생당원 총회

나. 作 成 者 : 불명시

다. 發 行 處(日) :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생위원회(준), (2002. 4. 17)

## 2. 分 析

### 1) 개요

0 이 문건은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생위원회(준)”에서 발행한 35쪽 분량의 유인물로서,

### 0 전반적인 내용이

-‘2001년 서울대 학생위(준)의 활동보고와 평가’, ‘규약개정안 인준’,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생위원회(준) 건설계획과 방향 심의’ 등의 안건을 상정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음.

### 2) 내용 분석

(1)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생위원회(준)”이 자주, 민주, 통일의 실현과 민중이 주인 되는 평등세상 건설을 투쟁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은 북한의 대남 투쟁 3대 과제와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회주의사회 건설 목적 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

< 예문 >

-서울대 학위(준)은 민주노동당의 학생부문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학생부문 대표...민족자주, 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민중이 주인 되는 평등세상의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서울대 학생위원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쪽)

-새 세상을 꿈꾸는자만이 새 세상의 주인이 된다 자유로운 민중의 나라 노동자해방을 위해...민주노동당이여 이제는 전진이다. (3쪽)

(2) 지난 4개월 동안 서울대 학위(준)이 당원내부의 사상적, 조직적 통합력에 문제가 있었음을 평가하면서, 이를 끈질긴 활동으로 극복해 나갈 것을 선동하고 있음.

< 예문 >

-현재 서울대 학위(준)의 4개월 간 활동보고와 평가를 진행하면서...아직 조직체계나 당원내부의 사상적 조직적 통합력은 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사상적 조직적 통합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끈질기게 전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14쪽)

(3)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위(준)”이 새로운 학생운동의 정형과 활동방식을 만들어 내기 위한 원칙을 제시하고, 학생위원회 건설을 위한 방향을 설정해 나갈 것을 선동하고 있음.

< 예문 >

-이제 민주노동당 학생당원은 학생대중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새로운 학생운동의 정형과 활동방식을 도출해야 하는 역사적 임무를 부여받게 된 것이다...대중운동의 실천 틀에 대한 합의를 하루빨리 도출하여 민주노동당 학생 대중운동의 정형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학생위원회 건설을 위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각 대학별 학생위원회 건설...전국 학생위원회 건설...이를 통해서 대중운동을 발전시키고,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당원활동의 실제적 모습을 구현해가기 위한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 (24-25쪽)

### 3. 總 評

상기 문건은 전술한 바와 같이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생위(준)”이 자주, 민주, 통일 실현과 민중이 주인 되는 평등세상 건설을 투쟁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학생운동의 정형과 활동방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원칙을 세우고 학생위원회 건설을 위한 방향 설정, 당원내부의 사상적, 조직적 문제점을 끈질긴 활동으로 극복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문건은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에 입각하여 민중이 주인 되는 평등사회 건설 즉, 사회주의사회 건설 및 북한의 대남 투쟁 3대 과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용공성향의 범주에 포함되는 문건으로 분류된다. < 끝 >.

1) 개요

0 이 문건은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생위원회(준)”에서 발행된 35쪽 분량의 유인물로서,

0 전반적인 내용이

- 2001년 서울대 학생위(준)의 활동보고와 평가, ‘유일계평한 인준’,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생위원회(준) 건설계획과 방향 설정’ 등의 항건을 상정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음.

2) 내용 분석

0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생위원회(준)”이 자주, 민주, 통일의 실현과 민중이 주인

2002年 7月 6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印

# 鑑 定 書

## 1. 對 象

- 가. 文 件 名 : 국가에 대하여  
 나. 作 成 者 : 잡동사니 청소부  
 다. 發 行 處(日) : 상동(발행일: 2003. 2. 7 )

## 2. 分 析

### 가. 개 요

본 문건은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위 작성자가 올린 내용으로써, '좌파'에 대하여 '사회주의'를 위해서 연대할 것과 노동계급의 단결을 주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음.

### 나. 주요 문제내용

- 좌파의 연대로 새로운 사회주의의 꿈을 개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예문 : "나는 .... '연대의 사회주의'를 주장한다 ... 우리는 독립된 좌파가 되어서는 않된다 .... 새로운 사회주의의 꿈을 개척해야 하는 것이다".(1쪽)
- 국가를 부인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간주한다고 피력하고 있음.  
 \* 예문 : "국가를 부인하고 권력의 의지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들이 정당하다고 간주한다".(1쪽)
- 노동계급의 단결은 사회주의의 헤게모니가 존재하는 좌파의 단결로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좌파들이 만나는 연대의 장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예문 : “노동계급의 단결은 ..... 사회주의의 체계모니가 존재하는 좌파의 단결로서만 가능하다. 이제 좌파들이 서로 다른 언어와 입장들,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본다 .....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재무장한 채 존립한다. 이들을 단일한 이념으로 묶어야 한다는 강박은 치료되어야 한다 .... 특히 대중들의 저항과 반역의 정치적 지향태인 좌파들이 만나는 연대의 장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2쪽)

○ 연대의 사회주의는 좌파들이 연대하여 대중의 저항과 반역에 복무하는 운동으로 전화하기 위한 반자본의 이념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예문 : “연대의 사회주의란 별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주의가 좌파중의 하나가 아니며, 좌파들의 총체도 아니며, 좌파들이 연대하여 대중의 저항과 반역에 복무하는 운동으로 전화하기 위한 반자본의 이념일 뿐이다”.(3쪽)

### 3. 總 評

본 문건은 ‘연대의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내용으로써, 좌파들이 국가를 부인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간주한다는 주장, 노동계급의 단결은 사회주의의 체계모니가 존재하는 좌파의 단결로서만 가능하다는 주장, 좌파들이 만나는 연대의 장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 연대의 사회주의는 좌파들이 연대하여 대중의 저항과 반역에 복무하는 운동으로 전화하기 위한 반자본의 이념이라는 설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따라서, 본 문건은 용공성향의 표현물로 판단됨. 끝.

2003 年 2 月 17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印

# 鑑 定 書

## 1. 對 象

가. 文 件 名 : 「맑스주의 신화인가, 역사인가」

나. 作 成 者 : 돌맹이

다. 發 行 處(日) : 불명(2002. 7. 4)

## 2. 分 析

### 가. 본 문건의 개요

본 문건은 상기 작성자의 필명으로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로 추정되는 것임. 전반적인 내용은 이용주의 글을 편집해온 것으로, 맑스주의의 철학적 해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임.

### 나. 문제의 내용 분석

(1) 전체적으로 볼 때 본 문건은 최근 포스트 맑스주의 등에서 맑스주의 청산의 논리에 이르기까지 맑스주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을 의식하여 맑스주의의 진정한 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는 것임. 주로 맑스주의 형성사와 변증법적 유물론 등의 해석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본 문건에서 공산주의를 미화하고 이를 선전선동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이를 철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수준으로 판단됨.

<이하 여백>

公安問題研究所

### 3. 總 評

앞의 분석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문건은 상기 작성자의 필명으로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로 추정되는 것임. 전반적인 내용은 이용주의 글을 편집해온 것으로, 맑스주의의 철학적 해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임.

전체적으로 볼 때 본 문건은 최근 포스트 맑스주의 등에서 맑스주의 청산의 논리에 이르기까지 맑스주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을 의식하여 맑스주의의 진정한 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본 문건에서 공산주의를 미화하고 이를 선전선동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이를 철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수준으로 판단됨.

따라서 본 문건의 내용만으로 이념적 맥락에서 문제삼기는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됨.

<이하 여백>

2003 年 4 月 29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이 조 원 印

### 3. 總 評

앞의 분석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문건은 민주노동당이 2002년 정기 당대회를 치루면서 그 자료집으로 발행한 것임.

전체적인 내용은 2001년 사업의 결산 및 감사보고와 당헌 개정안 및 2002년 사업계획과 예산 심의안 등을 총괄적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비록 본 문건에서 구체적인 좌익적 투쟁목표나 극단적인 투쟁선동적 주장은 없으나, 반미투쟁이나 통일투쟁과 관련한 주장은 통상 북한이 대남전술적 맥락에서 선전선동하는 기본노선을 그대로 수용 동조하고 있다고 판단됨.

이런 점에서 본 문건은 용공성을 지닌다고 판단됨.

가. 본 문건의 개요

<이하 여백>

본 문건은 상기 작성자의 필적으로 한 인물이 지어준 것으로 보이며, 내용은 이념주의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반미투쟁이나 통일투쟁과 관련한 주장을 다루고 있는 것임.

나. 문건의 내용 분석

(1) 전체적으로 볼 때 본 문건은 최근 포스트 맑스주의 등에서 맑스주의 정산의 논의에 이르기까지 맑스주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을 의식하여 맑스주의의 진정한 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는 것임. 주로 맑스주의 형성사와 변천설의 유물론 등의 폐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본 문건에서 공산주의를 미화하고 이를 선전선동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이를 논리적으로 비판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수준으로 판단됨.

<이하 여백>

2002年 5月 7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印



# 鑑 定 書

## 1. 對 象

가. 文 件 名 : 제목 : 민주노동당'의 약속- 강령 요약

나. 作 成 者 : 불명 (내용상, '민주노동당')

다. 發 行 處(日) : 상동

## 2. 分 析

가. 기본성격

분석의 대상이 된 문건은 위의 대상에서 언급한바, 작성자나 발행처가 불명인 상태이나, 내용상 '민주노동당'이 주체가 되어서 작성한 문건에 해당하는 <제목 '민주노동당'의 약속- 강령 요약>의 제목하의 내용이다.

문건의 기본성격은 2002년의 大選에서도 후보를 내고 예상과는 달리 선전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핵심의 당의 노선을 밝히는 綱領과 規約에 대한 요약적 해설의 내용이다.

일단 외형의 측면에서는 사실상 合法化된 상태의 정당으로 '민주 평등 해방의 새 세상을 향하여'라는 전제 하에, 자신들의 한국사회 관련의 정치와 사회체제의 운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문건의 핵심에 해당하는 성격은 階級矛盾의 관점에서 資本主義 중심의 자유민주의 체제를 '민중중심'으로 현재의 정치체제를 바꾸는 의미이다. 따라서 전체는 階級矛盾 관점의 PDR과 계투 변혁투쟁의 실천 전제의 원론적 내용이다.

나. 세부분석

1) 일단 외형의 측면에서는 '민주 평등 해방의 새 세상을 향하여'라는 전제하에 한국사회의 정치를 언급하고 있다. "정치-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민주정치를 위하여"라고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국보법의 폐지와 국정원 그리고 기무사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實質的인 민주화를 실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의 쇄신과 관련한 내용이 아니다. 계급모순의 관점에서 '민중중심'으로 현재의 정치체제를 바꾸는 의미이다.

p.1의 상단 <정치-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민주정치를 위하여>라는 항의 내용 전체.

2) 위 주장의 연장선에서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경제의 모순을 제거한다는 전제하에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집권과 관련하여 재벌을 해체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계급모순 관점의 계투 변혁투쟁의 실천 전제의 원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문 p.1의 중앙 <경제-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 민주적 경제체제 수립>하의 내용.

3) 조국의 통일에 대한 언급의 내용이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의 공산정권과 연대하며, 민중이 중심이 되는 통일의 실천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북한의 통일을 전제하는 階級矛盾에 의한 체제의 부정과 그에 따른 한국사회를 계급모순의 관점에서 부정하는 내용이다. 연장선에서 현재의 한국사회는 미국의 사실상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다.

p.1의 하에서 25-끝까지 : "통일- 자주 평화..... 실시하도록 한다."

4) '민주노동당'의 관점에서 현재의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과 여성정책 그리고 人權과 言論의 정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외형의 측면에서는 이상사회를 지향하는 '민주노동당'의 정치노선에 대한 입장의 표명이다. 이외 환경과 보건의료정책, 사회 문화에 대한 정책까지를 총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계급모순에 의한 현체제의 부정과 새사회의 구성에 대한 언급의 내용이다.

PP.2-4의 <노동- 노동을 통한 자아 실현을 위하여>의 내용 전체.

### 3. 總 評

'민주노동당'이 주체가 되어서 작성한 문건에 해당하는 <제목 '민주노동당'의 약속 - 강령 요약>의 제목하의 내용을 분석했다.

2002년의 대선에서도 후보를 내고 예상과는 다른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핵심의 당의 노선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위의 기본성격과 세부분석에서 언급한바, 일단 외형의 측면에서는 '민주 평등 해방의 새 세상을 향하여'라는 전제 하에, 자신들의 경우는 한국사회의 정치와 사회 자체를 理想國家로 만들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執權하여 국가의 운영을 목표로 하는 정당목표의 강령과 규약 내용으로 사실상 합법화된 상태의 정당이나, 실제의 내용을 보면 단순한 정치의 쇄신과 관련한 내용이 아니다. 階級矛盾의 관점에서 자본주의 중심의 자유민주의 체제를 '민중중심'으로 현재의 정치체제를 바꾸는 의미이다. 전체는 계급모순 관점의 계투 변혁투쟁의 실천 전체의 原論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문건의 성격은 PDR과 관점의 <용공>의 문건이다.

2003年3月17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印

## 鑑 定 書

## 1. 對 象

가. 文 件 名 : 시민 사회운동의 현실인식과 대응방향

나. 作 成 者 : 정대연(민중연대 정책위원장) 외

다. 發 行 處(日) : 미상(2001.09.26.)

## 2. 分 析

## 가. 성격

이 문건은 2001년 9월 26일 14시 홍사단 강단에서 개최된 “시민·사회운동의 현실 인식과 대응방향”의 토론회의 발제문으로서 총 32쪽의 자료임.

## 나. 내용 분석

● 이 문건의 “민족민주운동진영, 민중운동진영의 하반기 정세전망과 투쟁현안에 대한 소개”(정대연)<pp.14-22.>에서는 구조조정저지투쟁, 반통일수구세력척결투쟁, 반미투쟁, 반김00정권투쟁, 국가보안법철폐투쟁, 노농연대투쟁, 노동법개악저지투쟁, 진보진영정치세력화투쟁 등을 선전선동하고 있음.

0. “... 상반기 정세전망에서 예견한 바와 세계경제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 한국경제의 위기도 심화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이러한 위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국적 독점자본의 더욱 거센 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김00정권은 정권재창출을 위해 구조조정을 조기에 완료하여 하기에 하반기에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정점으로 치달을 것이다... 김00정권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민주노총 등 민중운동진영에 대한 고강도의 탄압정책과 고립화 전략을 추진해 왔다... 부시정권은 MD구축과 대북적대정책 등 노골적인 패권정책이 안팎의 저항과 비판에 부딪히자 북미대화의 재개를 선언하였다...”

부시정권의 대북적대정책과 연동하여 반통일수구세력의 사대매국적인 반통일책동도 날로 극심해져 최근에는 지극히 위험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김00정부의 동요성과 사대매국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00정부의 사대매국적 행위는 이른바 '전력증강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전쟁무기도입과 최근 전개된 을지포커스렌즈 훈련과 같은 연이은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 지극히 위;험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아울러 김00정부는 보수세력의 눈치를 살피며 국가보안법문제를 해결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내외 반통일세력들의 민족분열책동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남북사이 각계각층의 연대연합이 더욱더 가속화되어지면서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이와함께 남측내에서 반미투쟁이 날로 고양되고 있는 것도 조국통일의 유리한 정세이다... 따라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정치적 조건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반통일수구세력의 준동을 제압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나서고 있다..." <pp.14-17>

0. "...전국민중연대의 하반기 투쟁은 정세분석에 기초하여 투쟁방향을 정하고, 각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투쟁에서 민중연대의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잡는 것과 함께 특히 상반기 투쟁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부족점을 극복함으로써 민중진영의 상설적공동투쟁체로서의 지위와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그 기초를 잡아야 한다... 1. 강력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전선을 형성한다... 2. 광범위한 반김대중·반미연대전선을 구축한다... 3. 통일정세에 대응한다... 4. 정치투쟁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권력교체기에 주동적으로 땡으할 태세를 갖춘다... 5. 상설적 공동투쟁체 건설의 정치적 조직적 조건을 마련한다... III. 핵심투쟁과제... 1) 한국철도,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민영화 저지투쟁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저지투쟁 2) 한미/한일투자협정, 한칠레 무역협정체결 저지투쟁 3) 노동법 개악저지, 민영화 관련법안 저지 및 개혁입법쟁취투쟁... 4) 10월 부시방한 반대, 용산미군기지 반환을 중심으로 한 반미투쟁 5) 국가보안법철폐투쟁..." <pp.18-19.>

<이하여백>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印

### 3. 總 評

가. 文 件 名 : 시민 사회운동의 진영의 투쟁방향

결론적으로 이 문건은 민족민주운동(민중운동)진영의 투쟁방향을 구조조정저지 투쟁, 반통일수구세력척결투쟁, 반미투쟁, 반김00정권투쟁, 국가보안법철폐투쟁, 노농연대투쟁, 노동법개악저지투쟁, 진보진영정치세력화투쟁, 조국통일투쟁 등에 집중시키는 핵심투쟁과제를 선전선동하고 있는 것인 바, '용공성'의 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됨. <끝>

#### 가. 성격

이 문건은 2001년 9월 26일 14시 동사단 강연에서 개최된 "시민·사회운동의 현실 인식과 대응방향"의 토론회의 발제문으로서 용공성, 반공성

#### 나. 내용 분석

● 이 문건의 "민족민주운동진영, 민중운동진영의 하반기 경제전망과 투쟁현안에 대한 소개"(정대민) <pp.14-22>에서는 구조조정저지투쟁, 반통일수구세력척결투쟁, 반미투쟁, 반김00정권투쟁, 국가보안법철폐투쟁, 노농연대투쟁, 노동법개악저지투쟁, 진보진영정치세력화투쟁 등을 선전선동하고 있음.

0. "...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예견한 바와 세계경제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 한국경제의 위기도 심화되고 있다. ... 한국경제의 이러한 위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국적 독점자본의 더욱 커진 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김00정권은 경제성장률을 위해 구조조정을 조기에 완료하여 하반기 하반기에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정점으로 치달을 것이다. ... 2002년 01월 15일 구조조정을 인정적으로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민주노총 등 민중운동진영에 대해 포괄적 단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印

## 鑑 定 書

## 1. 對 象

가. 文 件 名 : 「신입당원교육자료집」

나. 作 成 者 : 불 명

다. 發 行 處(日) : 민주노동당 의정부시 지구당(2002. 9. 14)

## 2. 分 析

## 가. 본 문건의 개요

본 문건은 상기 단체가 신입 당원 교육을 위한 자료집으로 발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임. 서두에서 문답 형식으로 민주노동당의 정강정책 등을 소개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부분에서 반자본주의적 정향과 지향성을 분명하게 표출하고 있음.

## 나. 문제의 내용 분석

(1) 우선 “민주노동당은 우리 사회의 근본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 대한 대답 형식으로 “... 자주적 민족통일국가를 좌절시킨 분단의 역사와 만물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민주노동당이 지향하는 사회와 관련해서는 “...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함(5면). 이러한 주장은 다분히 반자본주의 사회, 즉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됨.

(2) 또한 이어서 민주노동당의 기본이념으로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바(5면), 다분히 사회주의 지향성을 밝히고 있다고 판단됨.

(3) 또한 경제 대안과 관련하여 “민주노동당은 자본주의의 질곡을 극복하고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사회경제체제를 건설한다"라고 밝혀(6면), 반자본주의 경제체제, 즉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음.

<이하 여백>

비록 본 문건에서 구체적인 개혁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문맥에서 볼 때 사회주의 개혁을 지향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문건의 유용성을 지닌다고 판단됨

<이하 여백>

2002年 10月 17日

金成國學研究所



### 3. 總 評

앞의 분석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문건은 민주노동당 의정부시 지구당이 당원 연수를 실시하면서 그 자료집으로 발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임. 서두에서 문답 형식으로 민주노동당의 정강정책 등을 소개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부분에서 반자본주의적 경향과 지향성을 분명하게 표출하고 있음.

비록 본 문건에서 구체적인 좌익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문맥에서 볼 때 사회주의 사회를 지향하고 있음을 감지케 함. 이러한 점에서 본 문건은 용공성을 지닌다고 판단됨.

<이하 여백>

### 2. 分 析

#### 가. 본 문건의 개요

본 문건은 상기 단체가 신임 당원 교육을 위한 자료집으로 발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임. 서두에서 문답 형식으로 민주노동당의 정강정책 등을 소개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부분에서 반자본주의적 경향과 지향성을 분명하게 표출하고 있음.

#### 나. 문건의 내용 분석

(1) 우선 "민주노동당은 우리 사회의 근본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 자본주의 민주본질국기를 수립하기 위한 사회와 민중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민주노동당이 지향하는 사회와 관련해서는 "...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정통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함(5면). 이러한 주장은 다분히 반자본주의적 사회, 즉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됨.

(2) 또한 이어서 민주노동당의 기본이념으로 "연류사여 연연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투쟁체제를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바(5면), 다분히 사회주의적 지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됨.

2002 年 10 月 17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印

## 鑑 定 書

## 1. 對 象

- 가. 文 件 名 : 「2002년 정기 당대회」  
 나. 作 成 者 : 불 명  
 다. 發 行 處(日) : 민주노동당(2002. 3. 16)

## 2. 分 析

## 가. 본 문건의 개요

본 문건은 민주노동당의 2002년 정기 당대회용 자료집으로 추정되는 것임. 전체적인 내용은 2001년 사업의 결산 및 감사보고와 당헌 개정안 및 2002년 사업계획과 예산 심의안 등을 총괄적으로 담고 있는 것임. 전반적으로 노동자 민중을 강조하고 있으며 통일투쟁과 관련해서 반미투쟁이 강조되고 있음.

## 나. 문제의 내용 분석

(1) 전체적으로 볼 때 2001년 사업목표와 2002년 사업목표를 제시하는 부분에서 대안적 정치세력으로서의 부상을 피력하는 대목은 있으나 구체적인 이적성을 지적할만한 부분은 없음. 그러나 2001년 자주통일위원회의 사업내용을 평가하는 대목에서 “우리는 김대중정권 4년을 지나면서 반미 자주없이는 통일도 민주도 개혁조차도 민중생존권도 보장받을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한번 확인하였다”라고 주장하고(60면), “반미투쟁을 기본기조로 김대중정부 규탄 견인투쟁을 동시에 수행해나감으로써 통일운동노선의 과학성을 담보했다”고 강조함(60면). 이러한 주장은 반미반정부투쟁을 핵심 통일투쟁의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분히 NL주사파 투쟁단체들의 입장과 노선을 같이하고 있음을 감지케 함.

(2) 또한 2002년도 정세를 분석함에 있어 “...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한간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미국의 전쟁위협 또한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84면), 향후 투쟁사업과 관련하여 “한미투자협정 체결반대, 무기수입반대 내정간섭반대 등 반외세 민족자주권 쟁취 투쟁을 전개한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을 비롯하여 주한미군기지 반환투쟁을 전국적 전당적으로 전개한다”라고 선동하고 있는 바(91-2면), 이러한 주장 역시 반미투쟁을 핵심적 투쟁전술로 하는 NL주사파의 투쟁노선과 동일한 입장에 서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됨.

(3) 또한 상기 투쟁과제로서 “국가보안법 철폐, 테러방지법 반대 등 민주 민권 강화 및 제도개선투쟁”을 들고(92면), 이를 “반민주악법 철폐투쟁을 전개한다”는 항목에 두고 있는 바(92면), 이러한 주장도 통상 NL주사파 정향의 좌익적 투쟁단체가 선동하는 전형적인 주장 내용임.

<이하 여백>

公安國際研究所

### 3. 總 評

앞의 분석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문건은 민주노동당이 2002년 정기 당대회를 치루면서 그 자료집으로 발행한 것임.

전체적인 내용은 2001년 사업의 결산 및 감사보고와 당헌 개정안 및 2002년 사업계획과 예산 심의안 등을 총괄적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비록 본 문건에서 구체적인 좌익적 투쟁목표나 극단적인 투쟁선동적 주장은 없으나, 반미투쟁이나 통일투쟁과 관련한 주장은 통상 북한이 대남전술적 맥락에서 선전선동하는 기본노선을 그대로 수용 동조하고 있다고 판단됨.

이런 점에서 본 문건은 용공성을 지닌다고 판단됨.

<이하 여백>

가. 본 문건의 개요

본 문건은 민주노동당 2002년 정기 당대회 자료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인 내용은 2001년 사업의 결산 및 감사보고와 당헌 개정안 및 2002년 사업계획과 예산 심의안 등을 총괄적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비록 본 문건에서 구체적인 좌익적 투쟁목표나 극단적인 투쟁선동적 주장은 없으나, 반미투쟁이나 통일투쟁과 관련한 주장은 통상 북한이 대남전술적 맥락에서 선전선동하는 기본노선을 그대로 수용 동조하고 있다고 판단됨.

나. 문건의 내용 분석

(1) 전체적으로 볼 때 2001년 사업목표와 2002년 사업목표를 비교하여 보면, 당헌 및 정치세력으로서의 주장을 강력하게 내세우는 내용은 없으나 구체적인 이념적 주장을 밝히는 내용은 없다. 그러나 2001년 자주통일위원회 사업대안을 평가하는 데 "우리는 절대공정원칙을 지내면서 반미 지극성은 통일과 민주노력자들과 함께 실현할 권위 보편성을 지닌다는 견해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미투쟁을 기본전선으로 대남전술적 수단 선전선동을 동시에 수행해나감으로써 통일운동의 정치 과잉성을 극복한다"고 강조한다(10쪽). 이러한 주장은 반미투쟁투쟁을 혁명적 투쟁의 하나로 본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2年 5月 7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印

# 鑑 定 書

## 1. 對 象

가. 文 件 名 : “2차 정기대의원대회”

나. 作 成 者 : 민주노동당 성북구 갑지구당

다. 發 行 處(日) : 민주노동당 성북구 갑지구당(2002.01.27.)

## 2. 分 析

### 가. 성격

이 문건은 2002년 1월 27일 오후 3시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회관에서 개최된 민주노동당 성북구 갑지구당(위원장: 김준수)의 2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사용한 총 21 쪽의 회의자료집임.

### 나. 내용 분석

● 이 문건은 민중이 주인되는 평등세상의 건설을 위한 민주노동당의 투쟁노선에 따라 노동자·민중정치세력화투쟁, 반신자유주의·반정권투쟁, 노동자·민중생존권투쟁, 반보수·반자본투쟁, 지방선거·대선투쟁 등을 주장하고 있음.

0. “... 동지 여러분! 올 한해는 우리 당에 있어서는 무척이나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얼마나 노동자, 민중의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느냐는 바로 87년부터 이어온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 운동의 한 결절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빠진 보수정치권에 맞서서 노동자, 민중의 대의를 정치적으로 형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성북지역 민중들을 만나고, 그들 속에서 진보정치의 싹을 돌아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가진 것이라고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열정과 2만에 달하는 우리 당원들뿐입니다...우리가 오늘 모여 함께 토론하고 결정하는 것이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라는 찬연한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각인 합시다...”<p.3.>

0. "... 제2조 (목적) 우리 지구당은 민족자주 · 민주주의 ·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민중이 주인되는 평등세상 건설을 위해 투쟁한다. 제3조 (사업) 우리 지구당은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② 노동자 민중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④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대한 지원과 연대사업..." <p.7.>

0. "... 2002년 지방선거는 대선을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준비해 가는 첩경이다. 2002 지방선거는 주민에게 당을 선전하고,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민중생존권 파탄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한편, 한나당의 보수적 본질을 철저히 폭로하여 진보정당의 정체성과 가능성을 대중적으로 확인시키는 장이다..." <p.14.>

0. "... 민주, 평등, 해방의 새 세상을 향한 이 땅 민중의 열망을 모아 민주노동당의 깃발을 힘차게 올린 지 2년. 우리는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현장에서, 총선투쟁 현장에서 노동자, 민중과 함께 힘차게 싸워 왔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부패방지법, 이자제한법 등 민중의 이해에 입각한 정책을 개발, 실현하고자 한 걸음씩 전진해왔다.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무기, 민주노동당!... 지역에서 구체적인 정치활동을 통해 더 많은 민중들을 민주노동당이라는 그릇으로 담아내기 위한 시간이었고 나아가 진정한 노동자, 민중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이었다... 민중 탄압, 민생 파탄의 오늘인 2002년. 우리는 또 다시 노동자, 민중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투쟁의 거리로, 선거투쟁의 공간으로!... 우리는 올해 지방선거를 통해 성북지역에 진보정치 실현의 거점을 확보하고 진보정당의 정체성과 가능성을 대중적으로 확인하며 이 성과를 모아 대선투쟁을 힘차게 전개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희망으로 떠올라야 한다. 노동의 정치, 민중의 정치를 현실의 희망으로 부활시키고 보수정치를 갈아 엮어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정치를 위하여 민주노동당 성북갑 지구당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적극 옹호할 것이며, 반 신자유주의, 반 보수정치의 깃발 아래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진보진영의 대통합과 노동자 중심의 정당 건설을 위해 우리 지역에서부터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대안 세력으로 우뚝 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역량을 모아 지방선거와 대선투쟁을 공세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p.20.>

<이하여백>

### 3. 總 評

결론적으로 이 문건은 민중이 주인되는 평등세상의 건설을 위한 민주노동당의 투쟁노선에 따라 노동자·민중정치세력화투쟁, 반신자유주의·반정권투쟁, 노동자·민중 생존권투쟁, 반보수·반자본투쟁, 지방선거·대선투쟁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 바, '용공성'의 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됨.<끝>

2002年 04月 11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印

# 鑑 定 書

## 1. 對 象

가. 文 件 名 : "2003년 서울시지부 정기 대의원대회 안건 초안"

나. 作 成 者 :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다. 發 行 處(日) : 上同(2003년 3월)

## 2. 分 析

### 가. 성 격

本 文件은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의 대의원대회 유인물로서 2002년 하반기 사업 및 대선 활동 평가, 2003년 사업기조와 과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나. 문 제 내 용

1) 반신자유주의와 반미투쟁, 민중연대투쟁 등을 정치적 사업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힘.

"2002년 하반기 사업 목표 ... 2) 민중운동진영의 반신자유주의, 민중생존권쟁취 반제 평화, 민주주의쟁취투쟁에 연대"(3면)

"2003년도 서울시지부 사업 목표 ... 2) 정치적 목표 ○ 반신자유주의, 반미반전 평화 투쟁의 전개 ... ○ 다양한 민중연대투쟁의 활성화 ○ 당원참여에 기반한 정치투쟁의 전개"(34-35면)



2) 2003년 핵심 사업과제로서 SOFA 개정을 비롯한 반미반전 대중운동, 서울지역 환경보호 운동과 노동자민중 생존권투쟁 등을 제시함.

“2003년 서울시지부 5대 핵심 과제 ... 2) 광범위한 정치적 대중운동의 전개 ... SOFA 개정, 남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 반미반전 평화운동 전개 ... 서울지역 난개발 문제 - 서울지역 노동자, 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결합 및 투쟁”(35면)

### 3. 總 評

이상에서는 1) 정치적 사업 목표로서 반신자유주의와 반미투쟁, 민중연대투쟁 등을 설정하며 2) 2003년 핵심 사업과제로서 SOFA 개정을 비롯한 반미반전 대중운동, 서울지역 환경보호 운동과 노동자민중 생존권투쟁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본 문건은 강한 反新自由主義 시각과 반미 의식을 드러내며 정부의 경제정책과 대미정책 비판을 시사하는 <반정부> 수준의 유인물로 판단됨. 끝.

2003年 5月 14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印